'동방신기 vs 빅뱅' 스크린 맞대결

〈영웅재중〉 〈탑·승리〉

내달 12일 '천국의 우편 배달부' '19' 동시 개봉

韓 배우+日 작가 텔레시네마 7편 연달아 상영

'일본 작가, 한국 배우들과 만나다.'

일본의 인기작가와 한국 유명 배우들, 그리고 드라마 PD들이 함께 만든 '텔레 시네마'가 관객들을 찾아온다. 드라마를 주로 제작했던 삼화네트웍스가 진행하는 '텔레 시네마'는 일본 작가가 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국의 감독과 배우들이 촬영한 7편의 영화를 연달아 개봉하는 프로젝트다.

텔레비전과 시네마의 합성어인 '텔레시네마'는 5일부터 순차적으로 국내에서 개봉되며 일본 상영 후에는 아사히 TV에서도 방영될 예정이다.

▲내 눈에 콩깍지=오는 5일 개봉을 앞둔 작품으로 '텔레 시네마' 프로젝트 중 가장 먼저 관객들을 만난다. 킹카 남자 주인공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일시적 시각장애' 진단을 받아 추녀와 미녀를 구분하지 못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로맨틱 코미디다.

'베토벤 바이러스', '스타일'의 이지아와 '7급 공무원'으로 로맨틱 코미디에서 진가를 발휘한 강지환이 주역을 맡았다.

▲천국의 우편 배달부=12일 개봉하는 영화로 '동방신기'의 영웅재중의 첫 연기 데뷔작이다.

상대역은 드라마 '찬란한 유산'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한효주가 맡았다. '하늘에서 내리는 1억개의 별'의 작가로 일본에서 '멜로의 여왕'을 불리는 키타카와 에리코가 글을 썼다.

부모, 남편, 연인, 친구, 자식 등 먼저 세상을 떠난 이들을 잊지 못해 남아있는 사람들이 천국에 있는 이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배달해주는 판타지다. 감독은 '미안하다 사랑한다'의 이형민 PD.

▲19='천국의 우편배달부'와 같은 날 개봉하는 영화로 아이돌 그룹 '빅뱅'의 탑과 승리가 주연을 맡았다. 여주인공은 허이재.

19세 남녀 3명이 우연치 않게 한 살인사건에 연루돼 함께 도망다니며 겪게 되는 서스펜스, 우정, 사랑 그리고 성장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드라마 '하얀거탑'의 이노우에 유미코가 시나리오를 써 화제가 된 작품으로 '왕초'의 장용우 PD가 메가폰을 잡았다.

▲돌멩이의 꿈='세계적인 축구 스타를 꿈꾸는 열살 소년과 돌팔이 관상쟁이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영화다.

자신이 관상을 봐준 사람이 죽게 되면서 그의 유품을 맡게 된 관상쟁이가 유족의 부탁으로 죽은 남자의 아들을 데리고 소년의 엄마를 찾아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에쿠니 가오리의 소설 '도쿄타워'를 원작으로 한 영화의 각본을 맡은 나카조노 미호가 글을 썼다. 주연은 차인표와 김효진이다.

▲트라이앵글=재벌가의 젊은 미망인이 소장하고 있는 세계적인 미술작품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블랙 코미디. 아리따운 미망인, 미망인의 환심을 사려는 사기꾼, 그를 쫓는 젊은 여자 형사의 삼각 관계를 다뤘다.

오랜만에 영화에 출연한 안재욱이 눈길을 끌며 이수경과 강혜정이 미망인과 형사로 출연한다.

▲낙원=교도소에서 막 출감한 여자가 낙원이라는 섬에 찾아가 학교 급식소에서 일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영화 '지금, 만나러 갑니다'의 오카다 오시카즈의 작품으로 지진희와 김하늘이 주연을 맡았다.

▲결혼식 후에=재혼하는 친구의 결혼식에 40대 중반 대학 동창생들이 모여든다. 유일하게 참여하기로 했던 여자 동창 대신 그녀의 딸이 참석 , 이 모임에 자신의 아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그리고 있다. '내 이름은 김삼순'의 김윤철 PD 작품으로 신성우·예지원·배수빈·고아성이 출연한다.

/김미은기자 mekim@

〈천국의 우편배달부〉

〈내 눈에 콩깍지〉

새 영화 마이클 잭슨의 '디스 이스 잇'

지난 6월 25일 갑자기 세상을 떠난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마지막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다.

영화 제목 '디스 이스 잇(This is it)'은 런던에서 올 7월부터 2010년 3월까지 50회 진행하기로 했던 콘서트의 이름이다.

3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리허설 동안 잭슨의 개인 소장용과 콘서트용으로 촬영된 영상은 잭슨이 런던으로 떠나기 8일 전까지의 모습을 담았다

영화는 완벽주의자라는 명성답게 꼼꼼히 콘서트를 준비하는 마이클 잭슨의 모습을 날 것 그대로 보여준다.

마이클 잭슨은 오디션을 거쳐 선발한 후배 뮤지션들과 함께 'Black or white'. 'Beat it' 등 자신의 히트곡을 들려준다. 또 '스릴러'의 3D 좀비 영상이나 컴퓨터 그래픽으로 완성될 100만 명의 군무 등 공연에서 사용하기 위해 촬영된 화면들은 압도적인 스케일을 자랑한다.

지난 28일 전 세계 동시 개봉, 2주간만 한정 상영되며 광주에서는 CGV 터미널점에서 만날 수 있다. 〈전체 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

완벽주의 '팝의 황제'가 남기고 간 마지막 선물

100만명의 군무…스케일 웅장